



## 신라 경덕왕대 불교 사원과 지방사회

Buddhist temples and local society in King Gyeongdeok's reign in Silla

---

저자 (Authors)	Bae, Sang-Hyun
출처 (Source)	<a href="#">신라사학보 (8)</a> , 2006.12, 75-115(41 pages) <a href="#">SILLASAHAKPO (8)</a> , 2006.12, 75-115(4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라사학회</a>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180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1805</a>
APA Style	(2006). 신라 경덕왕대 불교 사원과 지방사회. 신라사학보(8), 75-11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5 13:3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경덕왕대 불교 사원과 지방사회

裴象賢\*

- |                   |                |
|-------------------|----------------|
| I. 머리말            | IV. 운영의 기반과 촌락 |
| II. 치세의 동향과 불교 사원 | V. 맺음말         |
| III. 지방사회와 불교 사원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라 경덕왕대를 중심으로 불교 사원과 지방사회의 모습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먼저, 경덕왕대 치세와 주요 佛事를 아울러 모두 네 시기로 나누어 전반적 동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왕 7년 이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불교 실행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불사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佛國寺가 창건되기 시작하는 왕 10년 이후부터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왕은 부분적으로 지방의 승려와 사원의 창건을 경제적으로 후원하였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 사원의 相補的 관계를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재)동서문화재연구원 역사연구실장, 신라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주요 논저 : <眞鏡 審希의 활동과 鳳林山門> 《史學研究》 74, 2004 ;  
<松廣寺 소장 古文書에 비친 高麗 寺院의 모습-‘修禪社形止記’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 <고려시기 晉州牧 지역의 寺院과 佛典의 조성> 《大丘史學》 72, 2003 외 다수.

지방의 사원들은 그 지역의 토착신앙을 적극 포용하면서 전 지역에 걸쳐 자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는 의상의 화엄종 계열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는 특히 시기별로 金山寺·華嚴寺·白月山南寺·寶林寺·斷俗寺 등이 주목되었다. 신앙적으로는 소속 승려와 지역민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彌陀·彌勒을 중심으로 하는 정토신앙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발적 신행조직인 香徒의 활동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 지방의 불교 사원은 그 운영의 주체와 지방사회의 신행조직인 향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사원이 보유한 田民과 田莊, 그리고 長生標 등의 존재를 통해 대규모의 토지를 지배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 사원들이 지방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부의 경우이지만 사원과 결합된 촌락의 모습도 그것을 적극 반영하였다.

주제어 : 경덕왕, 불교 사원, 지방사회, 향도, 전장

## I. 머리말

신라사에서 景德王代(742~764)는 여러 방면에서 눈길을 끌어들였다.<sup>1)</sup> 종교·사상적 측면에서는 《論語》와 《孝經》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교육이 확대되면서도 발전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시기로 이해되었다. 개별 사원으로는 불국사와 석굴암에 관심이 모아진 듯 하고, 또 이 시기를 전후하여 펼쳐진 크고 작은 佛事에 대해서도 연구의 성과가 도출되었다.<sup>2)</sup>

1) 이들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정리된 바 있다.

郭丞勳, <新羅 中代 末期 中央貴族들의 佛事活動>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 《統一新羅時代 政治變動과 佛教》,

그런데 필자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 불교 사원과 관련된 史話들이 유달리 많이 전해지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은 지방사회의 동향들을 시사해 주는 것 같아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경덕왕대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대중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불교문화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되었던 시기로 보아진다. 따라서 이 시기 집권국가 내지는 국왕이 보인 주요 治世활동과 불교 사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동안 불교 사원에 대한 이해들이 주로 王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눈을 돌려 살펴보고자 한다. 기왕에 경주를 중심으로 불교 사원이 이해된 것은 집권적 국가에서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지만, 지방의 사원들이 지나치게 주변적인 것으로 비쳐지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사회에서 사원이 유지·운영될 수 있었던 기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기로 한다. 이로써 지방사회에서 불교 사원이 존립할 수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지의 전개를 통하여 경덕왕대의 불교 사원과 지방사회에 대한 관심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제현의 질정을 구한다.

---

國學資料院, 2002, 재수록 ; <石窟庵 建立의 政治·社會의 背景>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1 ; 慶州市·新羅文化宣揚會, 2000 : <景德王의 政治改革과 佛事活動> 앞의 책, 2002, 재수록.

## Ⅱ. 치세의 동향과 불교 사원

경덕왕은 전왕인 孝成王의 同母弟로 이름을 憲英이라 하였다. 효성왕이 아들이 없어 그를 태자로 삼았으므로 왕위를 잇게 되었다.<sup>3)</sup> 재위 기간 그의 활동을 보면 그는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비쳐진다. 대내적으로는 국왕으로서 政局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對唐外交를 펼치면서도 상대에 따라서는 強溫을 조절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치세활동은 그동안 왕권의 강화나 개혁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급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sup>4)</sup> 그런데 이 시기는 불교문화가 융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기 사원은 그러한 변화의 현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경덕왕의 치세활동과 함께 이 시기 불교 사원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먼저 이를 도표

3) 金壽泰는 이 과정을 孝成王代 朴氏王妃의 재등장과 연결시켜 이해하였다.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1996, 93~98쪽.

4)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저들이 제출되어 있다.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李基白,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申瀆植, 《統一新羅史研究》, 三知院, 1990; 金壽泰, 앞의 책, 1996; 박해현,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3.

5) 郭丞勳은 경덕왕대의 불사활동을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한 바 있다. 즉, 왕 15년까지가 侍中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아 前期, 16년 이후의 정치가 上大等を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後期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大正이 시중이 된 시점인 4년 5월부터를 2기, 이찬 朝良을 시중으로 삼은 시기를 3기, 16년 이찬 信忠을 상대등으로 삼은 때로부터 4기, 그리고 16년 信忠과 金崑이 사직한 이후를 5기로 하여 세분하였다(앞의 책, 2002).

로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시기별 동향과 주요 불사

시기	치세의 동향	주요 불사	
1 기	원년	· 10월 일본국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음	
	2	· 3월 唐 玄宗이 魏曜를 보내와 왕을 책립하고 작위를 받게함 · 정월 이찬 惟正을 중시로 삼음	
	3	· 윤 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냄 · 4월 신궁에 제사함	
	4	· 정월 金思仁을 상대등으로 임명함 · 5월 이찬 大正을 中侍로 삼음 · 7월 東宮을 수리함	· 4월 敏藏寺에 받을 주고 재물과 폐백을 바침 · 상대등에 임명된 金思仁이 无盡寺 鐘을 조성
	5	· 4월 죄수들을 대사하고 백성에게 술과 음식을 내림	· 4월 승려 150명의 출가를 허락함
	6	· 중시를 고쳐 侍中이라 하고, 국학의 여러 학업에 박사와 조교를 둠 · 백성이 굶주리고 역질이 퍼지므로 사자를 보내 무마토록 함	
	7	· 정찰을 두어 관리를 규찰케 함 · 大谷城 등 14곳에 군·현을 설치함	· 승려 發徵을 중심으로 香徒를 결성
	8	· 3월 천문박사 1인 漏刻博士 6인을 둠	· 승려 3인이 村主의 香徒 1백인과 결연
	9	· 이찬 朝良을 시중으로 삼음	
2 기	10		· 金大城이 불국사를 짓기 시작함 · 眞表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고 租 7만 7천 섬을 내림. 왕비와 외척이 戒品을 받음(眞表傳簡)
	11	· 3월 원신 용방을 대아찬으로 삼음 · 10월 倉部에 史 3인을 충원함	· 6월 金泰廉을 비롯 사신들이 일본 大安寺와 東大寺에 예불함
	12	· 8월 일본에서 온 사신이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냄	· 가름이 심해 葦長寺 조사 大賢에게 《金光明經》을 강설케 함
	13	· 5월 聖德王의 碑를 세움	· 孝貞과 三毛夫人이 施主가 되어 皇龍寺 중을 주조 · 瑜伽宗의 大賢을 皇龍寺에 초청 《화엄경》을 강하게 하고 行香함 · 7월 왕이 관원에게 명하여 永興寺와 元延寺를 수리하게 함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웅천주 向德을 표창함</li> <li>· 이찬 金耆를 시중으로 삼음</li> <li>· 7월 죄인을 용서하고 노약자들을 위로하고 곡식을 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皇龍寺 승려 緣起法師가 화엄사에서 《華嚴經》을 사경</li> <li>· 芬皇寺의 藥師如來像을 주조함</li> <li>· 왕이 부왕을 위해 聖德大王神鍾을 주조하기 시작함</li> <li>· 望德寺 탑이 진동함</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등 金思仁이 근년의 재앙을 두고 시정의 옳고 그름을 논하니 받아들임</li> <li>· 蜀에 피난 중인 당 현종에게 조공함</li> </ul>	
3기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찬 信忠을 상대등으로 삼음</li> <li>· 3월 중앙과 지방 관료의 月俸을 없애고 다시 祿邑을 주도록 함</li> <li>· 8월 調府에 史 2명을 더 두게 함</li> <li>· 12월 군현의 명칭을 바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白月山南寺를 창건함</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월 이찬 廉相을 시중으로 삼음</li> <li>· 2월 중앙과 지방 관리가 휴가를 청하고 만 60일이 넘으면 해임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우뢰와 번개가 쳐 16곳의 사원에 벼락이 떨어짐</li> <li>· 葛項寺에 石塔이 세워짐</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부 등 중앙 관부의 職을 漢式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寶林寺에 長生標柱가 세워짐</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찬 金崑을 불러 시중으로 삼음</li> <li>· 왕자 乾運을 태자로 삼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月明師를 불러 단을 열고 啓文을 짓게 함</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월 초하루에 무지개가 해를 가림</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섯 곳에 城을 쌓고 각 태수를 둠</li> </ul>	
4기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信忠과 金崑이 관직을 그만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純에 의해 斷俗寺가 창건됨</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찬 良相을 시중으로 삼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靈妙寺의 丈六尊像을 개금함</li> <li>· 高達寺가 세워짐</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이 세상을 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이 죽자 頓只寺에 장사하였다가 毛庇寺로 이장함</li> </ul>

경덕왕은 모두 24년을 재위하였다.<sup>6)</sup> 새 왕이 즉위하게 되면 그 초기는 전왕의 업을 이어받고 스스로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경덕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시기를 치세의 형성기로 본다면, 즉위초의 계승기를 포함해<sup>7)</sup> 대략 즉위에서 9년까지가

6) 본장에서 치세의 시기별 서술은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 景德王條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 파악되는 사원으로는 왕이 재물을 희사하는 敏藏寺가 있다.<sup>8)</sup> 그리고 상대등으로 임명된 金思仁이 오늘날 강릉지역에 위치한 无盡寺에 梵鐘佛事를 행한 것을 꼽을 수 있다.<sup>9)</sup> 민장사에 받을 시주하고 또 재물을 바친 것은 단순히 국왕의 佛心 이외에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10)</sup>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승려 150명의 출가를 허락하였다고 한다.<sup>11)</sup> 이 같이 대규모의 度僧을 허락한 것은 같은 시기 죄수들을 크게 사면한 조치와도 연결시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sup>12)</sup> 이들 불사들은 이 시기 치세의 일환으로 취해진 활동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이후 4년 동안은 국가나 국왕 주도의 불사가 별반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6년에 접어들면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물론 나라에서는 사자를 각 도에 보내어 위무하도록 하였으나,<sup>13)</sup>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시기 이후 지방에서는 자발적 信行 조직인 香徒의 움직임

7) 경덕왕이 그의 치세활동을 본격화 하는 시점은 3년 이후부터이다. 惟正을 中侍로 삼는 인사를 단행하고 唐에 사신을 보내는 등 인사와 외교활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듬해에는 金思仁을 상대등으로 임명하고 大正을 中侍로 삼는 등 중요한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8) 《三國遺事》 권3, 塔像 敏藏寺.

9) 金思仁은 鐘銘에 그의 서원을 ‘時願助在 衆師僧村 宅方一切 檀越并成在 願旨者 一切衆生 苦離樂得’이라 새겼다. <无盡寺鐘記> 《韓國金石全文(古代)》, 135쪽.

10) 이때를 전후하여 서울에는 계란만큼 큰 우박이 떨어지고 가뭄이 지속되는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 권9, 景德王 4년 4월~5월.

11) 《三國史記》 권9, 景德王 5년 4월.

12) 위와 같음.

13) 《三國史記》 권9, 景德王 6년 秋~冬.

임이 포착되어 주목된다. 高城·海南 등지인데 이곳은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토의 주변부에 해당한다.<sup>14)</sup> 이들 향도와 중앙의 정치권과의 관련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 조직은 지방내의 질서와 당면한 현안들의 해결을 모색하는 결집체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한편, 왕 10년 차가 되면서 왕경과 지방을 아울러 불교 사원은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대성에 의해 佛國寺가 개창되기 시작한다<sup>15)</sup> 이래 본격적으로 불사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왕 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이전과 시기를 달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국사는 그 寺名에서 부터 佛國土가 표방되고 있다.<sup>16)</sup> 그런가 하면 국왕은 직접 보살계를 받고 왕비와 외척들은 戒品을 받았다. 당시 受戒를 맡은 인물은 왕경의 승려가 아니라 지방에서 미륵신앙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던 眞表였다. 왕은 그에게 租 7만 7천 석을 내렸다고 하는데,<sup>17)</sup> 이 가운데 일부는 지방의 사원을 확대시키는 요긴한 밑천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 적극적인 불사 활동은 여러 갈래로 확인된다. 왕 12년 가뭄에 유가종의 승려를 불러 《金光明經》을 강설하면서 비를 빌었다 하고,<sup>18)</sup> 왕실의 인사들은 사원에 鐘과 불상을 앞 다투어 시주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sup>19)</sup> 그런가 하면 관원에게 명하여 왕실의 願堂격인 永興寺와 元延寺 등 왕경의 사원들을 수리하게 하고 있다.<sup>20)</sup> 그러면

14) <乾鳳寺蓮會碑> 《嶺東地方金石文資料集(1)》 ; <靈巖郡達摩山美黃寺事迹碑銘> 《朝鮮金石總覽(下)》.

15) 《三國遺事》 권5, 孝善 大城孝 二世父母.

16) 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觀> 《佛教研究》 2, 1986 :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재수록.

17) 《三國遺事》 권4, 義解 眞表傳簡.

18) 《三國遺事》 권4, 義解 賢瑜珈 海華嚴.

19) 《三國遺事》 권3, 塔像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

서 13년에는 부왕의 유업을 정리라도 하는 듯 聖德王의 비를 수립하고 있다.<sup>21)</sup> 따라서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왕의 치세관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불사활동 또한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라 볼 수 있다.<sup>22)</sup>

하지만 왕이 재위한지 14년째가 되는 해는 또다시 커다란 고비가 되고 있었다. 안으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유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sup>23)</sup> 왕은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죄인을 사면하고 노약자를 구휼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sup>24)</sup> 王京人까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빼어 아버이를 봉양할 정도였다고 하니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友邦인 唐이 내란에 휩싸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왕은 唐의 사정을 他邦의 일로 여기지 않아서인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절도사 安祿山의 반란으로 蜀에 피난 중인 唐 皇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sup>25)</sup> 이후 16년에서 21년에 이르는 기간은 강력한 왕권이 발동되고, ‘전제정치’라 불릴 만큼 그것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었다.<sup>26)</sup>

왕 16년 정월 信忠을 상대등으로 삼게 되면서 치세활동은 자못 파격적인 모습이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에는 서울과 지방 관리들의 月俸을 없애고 다시 祿邑을 내렸다. 7월에는 영창궁을 중수하

20)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3년 7월.

21)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3년 5월.

22) 이들 불사들은 대부분 王京에서, 그것도 王室 願堂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4년 봄.

24)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4년 7월.

25)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5년 2월.

26) 이 시기의 이른바 ‘전제정치’에 대해서는 그것이 왕권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사회전반의 구조적 인식을 결한 상태에서 나온 이해라는 지적이 있다(하일식, <신라 ‘전제정치’의 개념에 관하여>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해안, 2006, 311~322쪽).

였으며, 8월에는 調府에 史를 두 사람씩 더 두었다. 그리고 12월에는 沙伐州를 尙州로 고치는 등 전국 州縣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sup>27)</sup>

이러한 조치들은 이완된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민들을 安集시키며, 수취가 여의치 않고 구휼이 급선무가 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유보하거나 최소화하는 요긴한 방책으로서도 강구되었을 것이다.<sup>28)</sup> 주현의 개편은 京鄕의 지배세력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도 보여진다.

이듬해 2월에는 서울과 지방의 관리를 할 것 없이 휴가를 받은 뒤만 60일이 되는 자는 해직으로 처리한다는 교서를 내리고 있다.<sup>29)</sup> 잇따라 18년에는 중앙관청에 딸린 관직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이른바 ‘漢化政策’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불교 사원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시기 지방에서는 불교 사원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창원 지역에서는 彌勒·彌陀信仰이 만개하여 白月山 南寺가 창건되고,<sup>30)</sup>

27)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6년 3월~12월.

28) 이 시기 祿邑이 부활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제왕권에 대한 귀족세력의 승리로 이해하거나(金哲堧, <新羅貴族勢力의 基盤>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產業社, 1975; 姜晉哲, <新羅의 祿邑에 대하여>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論叢》 新丘文化社, 1969; 《韓國中世土地所有研究》, 一潮閣, 1989 재수록, 국가재정과 제도의 정비(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계의 연구-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역사비평사, 1991; 全德在, <新羅 祿邑制의 성격과 그變動에 관한 研究> 《歷史研究》 1, 1992), 또는 왕권의 강화를 위한 수순(趙二玉, <統一新羅 景德王代 專制王權과 祿邑에 對한 再解釋> 《東洋古典研究》 1, 1993)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29)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7년 2월.

30) 이 시기 仇史郡 백월산에는 夫得과 朴朴 兩師의 成道를 기리어 南寺가

장흥 寶林寺에는 수취자인 元表가 ‘法力으로 政事에 베푸는 바가 있어’<sup>31)</sup> 長生標柱가 세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지방사회가 불교 사원을 둘러싸고 조용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왕 22년부터~24년까지는 말기에 해당하였다. 이 시기 치세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모색이 이루어지는 듯 보여지기는 하나 측근의 인사들이 떠나가면서 다소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불교 사원과도 일정하게 소원한 관계로 비쳐진다.

여러 해에 걸쳐 왕을 보좌하였던 信忠과 金邕이 물러나고,<sup>32)</sup> 총신 李純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피하여 산으로 들어가 斷俗寺를 세우고 여러 차례 불려도 나오지 않았다 한다.<sup>33)</sup> 왕이 측근에 두고자 하였던 승려들은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34)</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경덕왕대의 치세와 더불어 불교 사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매 시기 사원도 일정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기근과 전염병 같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분명히 포함되고 있었다. 국왕은 지방의 승려와 사원의 창건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기도 하였는데<sup>35)</sup>

창건되었다. 《三國遺事》 권3, 塔像 南白月二聖 弩盼夫得 怛怛朴朴.

31)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韓國金石全文(古代)》, 200쪽, “元表以法力施于有政”.

32) 《三國史記》 권9, 景德王 22년 8월.

33) 《三國史記》 권9, 景德王 22년 8월, “大奈麻李純爲王寵臣 忽一旦 避世入山 累徵不就 剃髮爲僧”; 《三國遺事》 권5, 避隱 信忠掛冠.

34) 《三國遺事》 권5, 避隱 迎如師; 《三國遺事》 권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35) 왕이 지방 사원의 불사를 후원한 것을 단순히 왕권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왕실의 불사 그 자체가 곧 국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지방 사원이 국왕권과 相補的 위치에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이해가 아닐까 한다.

이는 단지 왕권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기보다는 지방민들의 동향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함의된 결과일 것이다.

### Ⅲ. 지방사회와 불교 사원

신라사에서 불교가 공인된 것은 법흥왕 14년(527)으로 6세기의 일이었다. 하지만 민간에서 불교가 처음 받아들여진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그것도 왕경이 아닌 지방에서였다.<sup>36)</sup> 눌지왕대 墨胡子는 一善郡 毛禮의 집에서 토굴을 파고 지냈다고 한다. 또 소지왕대 我道는 그를 수행한 3명과 함께 역시 모례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적이 있다.<sup>37)</sup> 신라에 불교의 수용과 공인이 비교적 늦어진 것은 지배귀족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명한 것은 지방에서는 불교가 기층의 토착문화와 습합되면서 이보다 앞서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불교가 國敎로 공인되고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해 가면서 승려들의 역할 또한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교 信行의 중심 공간인 사원의 기능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불교 공인 후 초기의 사원은

36)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가야지역에서는 이보다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적이 전해진다.

《三國遺事》 권3, 塔像 金官城 娑婆石塔, “金官虎溪寺娑婆石塔者 昔此邑爲金官國時 世祖首露王之妃 許皇后名黃玉 以東漢建武二十四年甲申自西域阿踰陀國所載來”.

《三國遺事》 권2, 紀異 駕洛國記, “元君八代孫金銍王克勤爲政 又切崇眞始 爲世祖母許皇后奉資冥福 以元嘉二十九年壬辰 於元君與皇后合婚之地創寺 額曰王后寺 遣使審量近側平田十結 以爲供億三寶之費”.

37) 《三國遺事》 권3, 興法 阿道基羅.

대개 국가가 창건을 주도하였고, 다분히 국왕 주도의 지배질서를 재편하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었다. 경덕왕대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원들이 세워져<sup>38)</sup> 불교문화가 융성해지고 있었다. 이전에 이미 창건된 지방의 사원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와서는 더욱 왕성한 활동을 보였을 것이다.

〈표 2〉 경덕왕대 지방의 주요 사원

번호	사원명	위치	주요 寺歷	번호	사원명	위치	주요 寺歷
1	鉢淵寺	금강산	眞表 창건, 占察法會	26	太和寺	울산	慈藏, 12支像浮屠
2	洛山寺	양양	義湘 창건, 觀音眞身	27	靈鷲寺	"	朗智乘雲
3	无盡寺	강릉	金思仁 梵鐘佛事	28	鴨遊寺	언양	慈藏, 鹹陽縣
4	眞如院	오대산	성덕왕 華嚴社, 莊舍	29	王后寺	김해	駕洛國記
5	月精寺	"	慈藏 개창, 有緣 중창	30	白月山南寺	창원	白月山兩聖成道記
6	水多寺	강릉	‘太白谷水多寺’ 명문와	31	萬興寺	거창	萬興寺山城, 居烈山城
7	淨巖寺	정선	石南院, 慈藏, 妙梵山	32	斷俗寺	산청	槽淵小寺, 李純 改創
8	月光寺	제천	道證 창건, 圓朗禪師塔碑	33	彌陀寺	진주	萬日契, 郁面碑
9	毗摩羅寺	원주	華嚴 十刹	34	法王寺	"	貴珍 捨家爲寺
10	法泉寺	원주	聖德王 창건	35	玉泉寺	(고성)	義湘 창건
11	鵲岳寺	영주	悟眞, 下柯山 鵲岳	36	莊義寺	세검정	長春郎과 罷郎의 追福
12	浮石寺	영주	義湘 개창, 華嚴傳敎	37	安養寺	북한산	對高句麗戰, 北韓山城
13	大乘寺	문경	亦德山 혹은 四佛山	38	高達寺	여주	元宗大師慧眞塔碑
14	葛項寺	김천	勝詮 鬪牓, 葛項寺石塔記	39	吉祥寺	속리산	眞表, 永深, 占察法會
15	嚴莊寺	구미	一善郡 毛禮의 집	40	烏合寺	보령	百濟系, 太宗春秋公
16	夫蓋寺	(영일)	청년기의 惠空 머뭇	41	水源寺	(공주)	眞慈師, 彌勒仙花
17	恒沙寺	영일	元曉와 惠空의 만남	42	孝家院	공주	信孝居士 捨家爲寺
18	零味寺	청도	伊西郡 今邵村	43	碑庵寺	연기	阿彌陀佛石像
19	初開寺	경산	元曉 창건	44	蓮花寺	"	阿彌陀四面石像
20	沙羅寺	"	佛地村, 元曉의 집터	45	金山寺	모악산	眞表의 出家, 중창

38) 이 시기에 세워진 사원으로는 无盡寺·敏藏寺·避里寺·念佛寺·讓避寺·茸長寺·華嚴寺·永興寺·元延寺·寶林寺·高達寺·掘佛寺·斷俗寺·壤寺·瑠璃光寺·白月山南寺·佛國寺·石佛寺·長壽寺·彌陀寺·菩提寺·法王寺·頃只寺·毛只寺·金山寺·鉢淵寺·吉祥寺 등이 꼽아지고 있다(진성규·이인철, 《신라의 불교사원》, 백산자료원, 2003, 107~128쪽).

21	嘉悉寺	청도	嘉瑟岬, 古尸寺, 岬寺	46	靈山寺	(김제)	眞表의 수행, 교화
22	幡高寺	울산	元曉 <初章觀文>의 저술	47	國神寺	김제	華嚴 十刹
23	通度寺	양산	慈藏定律, 布川山 五比丘	48	華嚴寺	구례	緣起祖師, 華嚴寫經
24	潤月寺	울산	石造如來坐像	49	靑林寺	부안	靑林寺銘文瓦
25	東竺寺	울산	河曲縣 絲浦	50	寶林寺	장흥	普照禪師彰聖塔碑

일찍이 세워진 사원들은 전통적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三山이나 五岳과도 밀접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매개한 신앙 또한 이 시기 사원들을 이해하는데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삼산은 국가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大祀의 대상이었다. 오악은 국토의 四方과 중앙에 해당하는 지방의 대표적 산악이었다. 여기에는 국가적 鎮護를 목적으로 사원들이 들어서 있었다.<sup>39)</sup>

신라의 지방 사원으로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이른바 ‘華嚴十刹’로 널리 알려진 사원들이다.<sup>40)</sup> 이들 사원들은 義湘을 개조로 華嚴宗과 관련이 깊었다. 이들 사원들이 창건된 배경에는 일정하게 중앙 지배층의 이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의 존재기반이나 운영 형태는 해당 지방의 사정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北岳의 부석사는 그런 화엄 사찰 가운데서도 으뜸이었다. 의상이 화엄의 이치에 따라 절을 창건하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태백산과 소백산의 길목에 자리한 요충지인 이곳은 이미 의상과 생각이 다른 5백여 무리가 있었던 만큼 창건에 앞서 이들 세력을 포용하는 것은 선결되어야 할 과제였다. 浮石과 善妙閣에 관한 史

39)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1972 : 《新羅 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재수록, 210~211쪽.

40) 이들 사원으로는 美理寺·華嚴寺·浮石寺·海印寺·普光寺·普願寺·岬寺·梵魚寺·玉泉寺·國神寺·(淸潭寺) 등이 있다. <法藏和尚傳>(《韓國佛教全書》 3-775) ; 《三國遺事》 권4, 義解 義湘傳敎.

話는 그러한 역사를 반영할 것이다.<sup>41)</sup>

의상은 귀국 후 山川을 두루 다녔다. 고구려의 먼지와 백제의 바람, 그리고 마소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땅이 신령스럽고 산이 수려하니 참으로 법륜을 굴릴 곳인데, 어찌 權宗異部の 무리들이 500명이나 모여 있을까”하고 생각했다. 또 조용히 생각하기를 “大華嚴敎는 福善의 땅이 아니면 흥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때 善妙龍은 항상 그를 따라 다니며 수호하고 있었는데, 의상의 이러한 생각을 몰래 알고, 곧 허공 중에서 大神變을 일으켜 넓이 1리나 되는 커다란 바위로 변하여 가람 위를 덮고 떨어질듯 말듯 하였다. 놀란 群僧들이 갈 바를 모르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의상은 드디어 이 절에 들어가 겨울에는 양지 바른 곳에서 여름에는 그늘에서 《화엄경》을 강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몰려들었다.<sup>42)</sup>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부석사의 금당은 無量壽殿이고, 그곳에는 극락왕생을 상징하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 비록 그것이 후대에 조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창사 정신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부석사가 창건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라 지배층의 ‘一統三韓’의 논리는 華嚴思想과 통하였지만, 지방의 기층사회는 여전히 세상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극락왕생을 주관하는 아미타불을 수요로 하였고, 이것이 신라 지배층의 논리였던 화엄사상과 결합되어 부석사의 창건연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南岳의 華嚴寺는 진흥왕 5년 연기조사가 세우고 선덕왕대 慈藏이 증창한 것으로 알려진다.<sup>43)</sup> 그리고 경덕왕 13년 8월에서 이듬해 2월에 걸쳐 《華嚴經》의 寫經이 이루어졌다.<sup>44)</sup> 사경에 참여한 사

41) 현재 선묘를 모신 仙妙閣은 무량수전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치 작은 암자의 山神閣과 같은 느낌을 준다.

42) 《宋高僧傳》 권4, 義解 唐新羅國義湘傳.

43) 慈藏의 증창설에 대해 삼국통합 이전에 신라의 승려가 이를 증축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진성규·이인철, 앞의 책, 2003, 111쪽).

람들은 대부분 화엄사와 가까운 지방 사람들이 많았고, 經心匠이나 發願人 등은 王京人이었다.<sup>45)</sup> 따라서 지방사원의 불사라 하더라도 중앙과 긴밀히 연계되고 또 지방 각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불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金堤 母岳山の 國神寺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국신사는 신라가 삼국을 병합 한 후 정복지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개창된 사원이었다. 하지만 경덕왕대 이곳은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10리 남짓 거리에 있는 金山寺가 眞表에 의해 중창되고 미륵신앙으로 널리 교화활동을 펼치면서 寺勢가 국신사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46)</sup> 금산사는 과거불인 伽葉佛 때의 절터를 중흥한 것이라고도 전하는데,<sup>47)</sup> 당시 대규모 講席이 펼쳐지고 구백제의 遺民意識이 결집되기도 하는 등 그 지방사회를 주도하였다. 이후 진표의 점찰계법과 미륵신앙이 전수되면서 금산사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원이 되었다.

진표는 금산사를 거점으로 여러 곳을 巡歷하였다. 溟州에 이르렀을 때는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고 물속으로 맞아들여 法을 강설하고 수계를 할’<sup>48)</sup>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는 그 영향력을 웅변해 주고 있다.<sup>49)</sup> 이는 지방의 불교 사원이 중앙의 영향력 아래에만 놓여있지

44) 黃壽永, <新羅景德王代の 白紙墨書 華嚴經> 《歷史學報》 83, 1979, 122 ~ 123쪽.

45)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武珍伊州·南原京·高沙夫里郡 등 오늘날 호남의 여러 지역에 걸쳐있고, 발원자인 緣起法師는 王京의 皇龍寺僧으로 나타나고 있다.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83, 1979 : 앞의 책, 1996 재수록, 363~367쪽.

46) 《三國遺事》 권4, 義解 眞表傳簡.

47) <高麗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482쪽.

48) 《三國遺事》 권4, 義解 眞表傳簡, “遊涉到阿瑟羅州 島嶼間魚鼈成橋 迎入水中 講法受戒”.

49) 당시 溟州는 金思仁이 정치적으로 축출 당한 후 그 기반으로 삼았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金貞淑, <金周元 世系の 成立과 變遷> 《白山學報》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덕왕대는 초기부터 불사가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비교적 초기 경덕왕과 직접 관련성을 보이는 사원으로 敏藏寺가 있다.

(4년 4월) 禹金리에 사는 가난한 여자 寶開에게 長春이란 아들이 있었다. 바다의 장삿꾼을 따라다녔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민장사(이 절은 敏藏角干이 자기 집을 내놓아 절로 삼은 것이다) 관음보살 앞으로 가서 7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장춘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 까닭을 물으니 장춘이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에서 회오리바람을 만나 배가 부서져 동료들은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널빤지를 타고 오나라 해변에 닿았습니다. 오나라 사람들은 저를 데려다가 들에서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스님이 고향에서 온 것처럼 저를 은근히 위로하고는 데리고 동행하는데, 앞에 깊은 개천이 있어서 스님은 저를 옆에 끼고 건너뛰었습니다.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 우리말 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리므로 그곳을 살펴보니 벌써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초저녁에 오나라를 떠났는데 이곳에 이른 것은 겨우 戌時 초였습니다” 때는 天寶 4년 을유(745) 4월 8일이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민장사에 받을 시주하고 또 재물과 폐백을 바쳤다.<sup>50)</sup>

민장사는 왕이 직접 받고 재물과 폐백을 시주한 사원으로 그 이름이 등장한다. 민장사는 지방의 사원은 아니었으나 그 저변을 보면 지방과 결코 무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관음보살의 영험이 있는 기도처였다. 당시 敏藏寺에는 念佛師의 소상이 안치되고 있었다. 염불사는 생전에 늘 阿彌陀佛을 염송하여 성안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한다.<sup>51)</sup> 여기서 감응을 받은 사람은 寶開였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실질적인 가장은 아들 長春이었다.

28, 1984, 154~158쪽.

50) 《三國遺事》 권3, 塔像 敏藏寺.

51) 염불사는 원래 남산 동쪽 避里村에 머물렀는데 이 스님으로 인해 寺名도 念佛寺가 되었다고 한다. 《三國遺事》 권5, 避隱 念佛師.

그들은 생업으로 보아 도성 주변의 빈민에 가까웠던 계층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방에서 활로를 찾아 상경한 부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장사의 신행담을 둘러싼 이 이야기는 당시 이 절에 출입한 사람들의 계층과 신앙경향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들 출입 계층 가운데는 지방에서 상경한 무리와 도시주변의 빈민층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관음신앙을 적극 신봉하였다.

이 시기 지방 사원의 동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香徒였다. 경덕왕 7년 고성에서는 승려 發微 외 31인이 향도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었다.<sup>52)</sup> 이들은 법회에서 죽과 음식과 의복을 시주하였다. 남쪽 끝 흔히 ‘땅 끝’이라고도 불리는 海南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찾아진다.<sup>53)</sup> 여기서는 향도 1백여 인이 서로 결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활동의 구심점은 승려나 사원이었다. 이들 내용은 지방사회에서 사원을 중심으로 신행조직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지방 사원에서 승려의 활동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 眞表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진표는 記別을 받자 金山寺로 와서 살았다. 해마다 정성껏 壇席을 열어 불법을 널리 베풀었다. 그 단석의 정결하고 엄격함이 말세에서는 아직 없던 일이었다. 풍속과 불법의 교화가 두루 미치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阿瑟羅州에 이르렀다. 섬 사이의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고 물속으로 그를 맞아들이므로, 佛法을 강설하고 戒를 주었다. 그 때가 天寶 11년[경덕왕 12년] 2월 15일이었다. ... 경덕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고 租 7만 7천 석을 내렸다. 왕후와 왕족들도 모두 戒品을 받고 비단 500단과 황금 50량을 보시

52) <乾鳳寺蓮會碑> 《嶺東地方金石文資料集(1)》. 동일한 내용을 실고 있는 다른 기록인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乾鳳寺本末事蹟》, 亞細亞文化社, 1977)에는 景德王 17年 戊戌로 나온다. 여기서는 앞선 자료의 연대를 감안하였다.

53) <靈巖郡達摩山美黃寺事迹碑銘> 《朝鮮金石總覽(下)》.

하였다. 진표는 이것을 모두 받아서 여러 절에 나누어주어 널리 불사를 일으켰다. 그의 사리는 지금도 鉢淵寺에 있으니, 곧 바다의 물고기들을 위하여 계를 주던 곳이다.<sup>54)</sup>

眞表는 完山州 萬頃縣[金山] 출신으로 경덕왕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지방 승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효성왕 4년(740) 悟道하였는데, 본격적인 활동을 보이는 시기는 景德王의 재위 연간이었다.<sup>55)</sup> 진표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占察經》에 따른 懺悔法을 강조하고 미륵의 교법을 중시한 점이었다.

부안의 不思議庵은 진표가 亡身懺으로 悟道한 곳이었다. 그리고 靈山寺로 옮겨와 미륵의 傳法을 받았다고 한다. 모악산 金山寺 일대는 그가 주요 거점으로 삼은 곳이었다. 이곳은 진표가 출가할 당시에는 順濟가 주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회법을 닦아 미륵보살과 지장보살로부터 戒法을 전해 받은 진표가 증창하게 되면서 지역의 중심 사원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후 진표는 여러 지역을 巡歷하여 금강산 鉢淵寺, 속리산 吉祥寺, 그리고 阿瑟羅州[溟州]에 이르기까지 교화를 펼쳤다. 그의 교법의 요체는 참회법과 미륵신앙이었는데, 그 교화력이 전국에 걸치고 있었다.<sup>56)</sup> 왕은 소문을 듣고 그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菩薩戒를 받았고, 왕

54) 《三國遺事》 권4, 義解 眞表傳簡.

55) 眞表에 대한 연대기 자료는 《三國遺事》, 《宋高僧傳》, <眞表律師眞身骨藏立石碑銘>, <眞表律師事蹟碑> 등에 전해지고 있고, 연대에서는 기록마다 편차가 있다. 여기서는 《三國遺事》 <眞表傳簡>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를 검토한 논고로 金南允, <眞表의 傳記資料의 檢討> 《國史館論叢》 78, 1997이 있다.

56) 眞表의 수행과 교화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尹汝聖, <新羅 眞表의 佛教信仰과 金山寺> 《全北史學》 11·12, 1989, 38~43쪽; 金南允, 앞의 논문, 1997, 95~101쪽; 박광연, <眞表의 占察法會와 密教 수용> 《韓國思想史學》 26, 2006, 24~27쪽.

실 종친이 모두 그에게서 戒品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가 받은 시물은 자그마치租가 7만 7천 석이었는데, 모두 산문으로 나누어주어 불사를 더욱 펼치니 제자들은 각지에서 山門의 開祖가 되었다고 한다.<sup>57)</sup> 이들 자산은 비단 500단 황금 50량과 더불어 불사의 물적 자산이 되어 지방 사원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다.

경덕왕대는 빈번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유행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 왕 14년에도 이러한 이유로 많은 유민들이 발생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그들을 구휼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긴밀한 관계에 있던 唐이 내란에 휩싸여 신라의 국내정치에도 적지 않은 과장을 예고하였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이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모를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 봉양하는 이도 속출하였다.

天寶 14년 을미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주리고 유행병까지 겹쳤다. 向德의 부모는 굶주리고 병들었을 뿐 아니라 어머니는 등창까지 나서 모두 죽기에 이르렀다. 향덕은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으나 봉양할 수가 없었으므로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먹었다. 또 어머니의 등창은 입으로 빨아서 모두 무사하게 되었다.<sup>58)</sup>

주인공 向德은 일반 서민은 아니지만 孝善의 사례로 열전에 오른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사례 이면에는 무수한 지방민들의 고통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에 국가는 노약자를 위로하고 창고를 여는 등 적극 구휼에 나서야 하였다.<sup>59)</sup> 기근과 전염병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소식들이 감지되고 있었

57) 《三國遺事》 권5, 義解 眞表傳簡.

58) 《三國史記》 권48, 열전8 向德.

59)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4년 7월.

다. 望德寺 탑이 진동하였다는<sup>60)</sup> 짧은 기록의 이면에는 이웃 당의 內亂 소식이 축약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sup>61)</sup> 곧 그 해 安祿山은 楊國忠의 토벌을 명분으로 군사 15만을 거느리고 范陽으로부터 남하하여 전국을 뒤흔드는 대반란을 일으켰고, 이후 黃河 이북의 州縣이 바람과 같이 스러져 그의 휘하에 들어가고, 至德 元年(756)에는 마침내 국호를 大燕이라 하고 스스로를 皇帝라 칭하였다. 이후 안록산의 난은 8년여를 이어갔다.<sup>62)</sup> 비록 이웃나라의 사정이었지만 신라의 왕실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특히 안록산은 지방의 節度使로서 반란을 일으켰던 점은 유념해야 할 대목이었을 것이다.

唐이 내란을 겪고 있는 동안 신라왕은 천리를 마다 앓고 사신을 파견해 멀리 蜀지방에 피난 중인 玄宗을 찾기도 하였다. 사신이 양자강을 거슬러 成都의 행재소에 닿자 현종은 직접 지은 5言 10韻의 詩로써 답례하였다.<sup>63)</sup> 신라왕으로서는 당의 內亂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는 신라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과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즈음 왕은 자신의 후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진다.<sup>64)</sup>

60)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4년.

61) 望德寺는 신문왕 5년에 낙성된 사원으로(《三國史記》 권8, 神文王 5년 4월), 신라에서 唐 황제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세워진 사원으로 알려진 四天王寺를 대신해 세워진 절이었다.寺名은 당의 사신이 ‘望德遙山’이라 하여 이 절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三國史記》 권2, 紀異 文虎王法敏) 알려진다.

62) 《通鑑紀事本末》 권31, 安史之亂 : 《歷代紀事本末》 中華書局出版, 1997.

63) 《三國史記》 권9, 경덕왕 15년 春 2월.

64) 왕권에 대한 불안감은 개인적으로 後嗣에 대한 강한 집착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表訓과의 일화는 그러한 반영일 수 있을 것이다. 《三國遺事》 권2,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王一日詔表訓大德曰 朕無祜 不獲其嗣 願大德請於上帝而有之 訓上告於天帝 還來奏云 帝有言 求女即可 男即不宜 王曰 願轉女成男 訓再上天請之 帝曰 可則可矣 然爲

이런 가운데 지방의 불사활동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사가 줄었다 하여 지방의 불교신앙 자체가 위축될 수는 없었다. 다만,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사활동이 일정하게 자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sup>65)</sup> 왕 16년 白月山 南寺의 창건배경에는 지방의 활발한 불교신앙이 도성에까지 알려져 마침내 왕이 사자를 보내어 사원의 창건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노힐부득은 彌勒尊像이 되어 광명을 발하고 ... 박박은 無量壽를 이루어 두 尊像이 엄연하였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투듯 와서는 우리러보고 감탄하여 참 드물고도 드문 일이라 하였다. ... 왕은 이 일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큰 절을 세우고 그 이름을 白月山 南寺라 하였다. 7년 뒤 절이 완성되자 두 성도를 기리어 金堂과 講堂을 건립하고 각각 ‘現身成道彌勒之殿’, ‘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 하였다.<sup>66)</sup>

백월산 일대는 일찍부터 낙동강과 남해를 통해 교통이 용이한 지역이었다. 그만큼 쉽게 선진문물을 먼저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불교의 수용과 전파도 그에 따라 앞섰을 가능성이 높는데, 범종곡과 승도촌, 대불전과 소불전 등 이 지역에 발달된 사원 촌락들은 그러한 심증을 더욱 짙게 하여준다.

지배층에 의한 불사가 극도로 자제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던 시기, 국왕이 직접 나서 南寺의 창건을 주도한 것은 두 성인의 成道사실이 널리 퍼진데 따른 지역사회의 반향을 감안한 조치였을 것이다. 특히

---

男則國殆矣 訓欲下時 帝又召曰 天與人不可亂 今師往來如隣里 漏洩天機 今後宜更不通 訓來以天語諭之 王曰 國雖殆 得男而爲嗣足矣 於是滿月王后生太子 王喜甚”.

65) 이 시기 국왕이 보여주는 과격적인 지방통제정책은 불가피하게 중앙 귀족들의 지방 불사를 자제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6) 《三國遺事》 권3, 塔像 南白月二聖 弩盼夫得 怛怛朴朴.

彌勒佛로 現身 成道한 사례는 변화에 대한 지역 민심의 요구를 반영할 수도 있었다. 왕이 이를 적극 포용하면서 서둘러 사원의 창건을 지원한 배경에는 이러한 의도도 작용하였을 것이다.<sup>67)</sup>

한편, 말기의 지방사회는 정치권의 변화와 함께 그 여파가 감지되고 있었다. 斷俗寺의 개창 배경은 그런 점을 시사해 준다.

대내마 李純은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는데, 홀연히 하루아침에 세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여러 번이나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서 왕을 위해 斷俗寺를 세워서 살았다. 후에 왕이 음탕한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대궐문에 가서 간하여 아뢰었다. “신이 들으니 옛적에 夏나라의 桀王과 殷나라의 紂王이 술과 계집에 빠져서 음탕한 음악을 그치지 않다가 이로 말미암아 정사가 점차 쇠퇴해져 나라가 망했다 합니다. 앞사람의 실패한 자취를 보고 뒷사람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감히 대왕께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스스로 새롭게 하여 나라의 수명을 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를 듣고 감탄하여 음악을 정지하고, 곧 그를 正室로 불러들여 불도의 묘한 이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듣고, 며칠 만에 듣기를 그쳤다.<sup>68)</sup>

李純은 비록 고위직은 아닐지라도 국왕의 측근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인물이 세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왕을 위해 단속사를 세웠다고 한다. 이순이 속계를 피해[斷俗] 지방으로 내려와 사원을 창건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지방 사원이 운영상 독자성을 가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단속사에 머물면서도 무지개와 같이 王京과의 소통이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지방 사원의 한 모습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원래 단속사는 槽淵小寺라는 작은 절이었다고 한다. 이순은 이를

67) 배상현, <신라 경덕왕대 지방사회와 白月山 南寺의 창건—「白月山兩聖成道記」를 중심으로—> 《白楊人文論集》 11, 2006, 130~131쪽.

68) 《三國史記》 권9, 景德王 22년 8월.

고쳐 큰 절로 중창하였고 寺名도 단속사로 고쳐 부른 것이었다.<sup>69)</sup> 그가 ‘세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여러 번이나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는<sup>70)</sup> 점으로 미루어 그가 단속사를 선택한 이유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sup>71)</sup> 信忠 또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sup>72)</sup> 그는 왕 16년에 상대등에 발탁된 인물로 이후의 이른바 ‘개혁’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sup>73)</sup>

이순이나 신충 같은 이는 모두 국왕의 측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이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중앙의 관직에서 벗어나 지방의 사원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sup>74)</sup> 채록의 과정에서 혹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sup>75)</sup> 이들이 지방 사원에 의탁하였다는 사화와 속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시기 지방 사원의 위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속사에는 神行이 머물게 되면서 중국 달마계통의 北宗禪이 전래되었다. 신행은 道의 근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을 보라 [看心]’고 가르치고, 그릇이 익은 자를 위해서는 수많은 방편을 보여

69) 《三國遺事》 권5, 避隱 信忠掛冠.

70) 《三國史記》 권9, 景德王 22년 8월, “避世入山 累徵不就”.

71) 이에 앞서 비슷한 시점에 상대등 信忠과 시중 金邕이 면직되고 있는데 (《三國史記》 권9, 景德王 22년 8월), 이는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72) 《三國遺事》 권5, 避隱 信忠掛冠. 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상 혼선을 보여 상고를 요한다.

73) 信忠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사원으로 왕경의 奉聖寺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 된다. 李基白, <景德王과 斷俗寺·怨歌> 앞의 책, 1974, 224~227쪽; 李根直, <통일신라 奉聖寺와 折怨堂> 《新羅史學報》 7, 2006, 87~90쪽.

74) 《三國史記》 권9, 景德王, 22년 7월.

75) 李基白은 李純이 승려가 된 것을 天寶 7년으로 보아 《三國史記》의 경덕왕 22년 출가 기록을 撰者의 실수로 보았다(李基白, 앞의 책, 1974, 221쪽).

주어 교화하였다고 한다. 신행은 혜공왕 15년 이곳에서 입적하였는데 그가 언제 단속사에 입거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sup>76)</sup>

마지막으로, 왕 24년 忠談師와 왕의 만남은 당시 불교계와 더불어 지방사회의 분위기를 시사해 주는 대목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충담은 3월 3일과 9월 9일에 南山 三花嶺 彌勒世尊에 나아가 茶를 공양하던 인물로, 굳이 따진다면 당시 지배층과는 이해를 공유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sup>77)</sup> 그런 인물에게 왕은 ‘안민의 노래[安民歌]’를 짓도록 요청하였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라. 백성은 어린[어리석은] 아이라 하실지면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로다. 구물거리며 사는 중생[物生]들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오 한다면 나라가 보전됨을 알리이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 하리이다.<sup>78)</sup>

그 내용은 왕의 주문을 감안하여 올려진 것이라 하지만, 듣는 이에 따라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정도의 직설적인 뉘임으로도 읽혀진다. 결국 임금이 신하들을 아울러 백성의 어버이로서 그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들을 먹여 살리기만 한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지 않고 나라가 잘 보전됨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76) <斷俗寺神行禪師碑> 《韓國金石全文(古代)》, 158~161쪽.

77) 남산의 불교 유적에는 彌陀·彌勒·藥師·觀音·釋迦·文殊信仰 뿐 아니라 神印·法相·密敎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교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王都 근교의 백성들과 가깝게 자리한데 기인할 것이다. 尹京烈, 《慶州南山—겨레의 땅 부처님 땅》, 佛地社, 199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 2000.

78) 《三國遺事》 권2,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此盼喰惡支治良羅 此地盼捨遺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國惡支持以支知古如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國惡大平恨音叱如”.

당시 왕은 귀족세력에 에워싸여 원만한 치세의 도를 찾지 못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도 어려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가 구하고자 하는 그 ‘安民’의 백성이 누구냐는 것이다. 미륵을 중심으로 신봉하던 이 고승의 해답에는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오 한다면, 나라가 보전됨을 알리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보다 지방사회의 유민들을 고려한 이야기일 것이다. 따라서 왕이 구하고자 하는 대답도 그들 유민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왕은 그의 진솔한 용기를 가상히 여겼을 법한데, 그를 王師로 봉하여 측근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사양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또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승려 迎如는 자신을 國師에 봉하자 숨어버리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sup>79)</sup> 이는 충신이었던 李純이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지방의 山寺로 숨어든 것과 더불어 당시의 지방 사회를 시사해 주는 史話라 하겠다.

#### IV. 운영의 기반과 촌락

그렇다면 경덕왕대 지방의 사원이 운영될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는 기층의 신행조직과 경제기반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신라사회는 일찍부터 불교와 관련된 신행조직을 보여준다. 진지왕대 眞慈師의 행적은 彌勒信仰과 僧侶郎徒의 모습을 보여준다.<sup>80)</sup> 김

79) 경덕왕대 迎如는 實際寺의 승려였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그가 머물던 절은 이후 國師房으로 불리었다 한다. 《三國遺事》 권5, 避隱 迎如師.

80) 《三國遺事》 권3, 塔像 彌勒善花 末尸郎 眞慈師.

유신의 龍華香徒는<sup>81)</sup> 화랑도와 彌勒信仰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이해된다.<sup>82)</sup> 이는 미륵신앙의 유행과 함께 그 사회적 조직으로 향도가 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조직은 신라 중대를 지나오면서 더욱 발전되는 모습이었다. 백제 거족 眞牟氏와 백제 유민 등으로 구성된 250여 인 규모의 彌次乃香徒는 그러한 사례이다.<sup>83)</sup> 이는 연기군 지역의 승려와 관인, 불교도가 하나로 결합되어 공동의 발원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새로이 발견된 사례로 주목되는 것이 있는데 泗川古碑가 그것이다.<sup>84)</sup> 비록 片이어서 비문의 전체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후 양면에 ‘향도’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는 승려[大德], 관원[縣令], 그리고 재지 유력가로 활동한 村主 계층이 포함되고 있다.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외에도 여기에는 다수의 지역 촌락민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당시 이 지역의 사원을 둘러싼 僧·官·民이 결합된 형태의 향

81) 《三國史記》 권41, 金庾信(上).

82) 龍華香徒를 斷石山 神仙寺와 연결시킨 논고가 있다. 金庠基, <花郎과 彌勒信仰에 대하여>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7~11쪽.

83) <癸酉銘三尊千佛碑像> 《韓國金石全文(古代)》, 80~81쪽.

84) 비는 泗川市 船津城公園 停車場敷地 發掘調査 과정에서 출토되었다(慶南文化財研究院, <泗川 船津城公園 停車場敷地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2004.6). 이 비에 대해서는 金昌謙, <최근 발견 ‘泗川船津里新羅碑’ 검토>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에서 종합적 검토를 시도한 바 있고, ‘新羅天雲大王銘碑’로 지칭되기도 하였다(鄭義道, <新羅天雲大王銘碑 研究> 《한국중세사연구》 20, 2006).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 비는 新羅 香徒碑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된다. 비는 앞면 760×200~240cm, 뒷면 760×180~230cm 두께 180cm 정도인데, 양면에는 모두 ‘香徒’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비록 片이어서 내용의 전모를 알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지역의 사회조직으로서 불교신행과 그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도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

이 비에는 건립의 시기를 추정케 하는 몇 가지 단서가 숨겨져 있다. 먼저 비편에는 總官, 上大等, 柰末, 縣令 등 관직명이 보인다. 이 가운데 ‘總官’이라는 관직명은 원성왕 원년(785) 都督으로 개칭되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연대의 하한선은 대략 8세기 후반임을 알 수 있다.<sup>85)</sup>

또 이 비는 흔치않은 서체를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立碑의 시점을 추정케 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곧 ‘國主天雲大王’의 구절에서 ‘天’은 ‘而’의 형태로 則天武后字에 해당하는 글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sup>86)</sup>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되다가 폐기된 글자로, 한국사에서는 특히 경덕왕대를 전후한 시점에 다수 사용된 예가 발견된 바 있다. 경덕왕 13~14년에 조성된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무려 13종 500여 자가 확인된 바 있다.<sup>87)</sup> 따라서 이 비석의 조성연대도 이런 문자가 사용된 성덕왕~혜공왕대를 포함하는 어느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sup>88)</sup> 그렇다면 이 비는 경덕왕대 지방사회의 향도 조직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85) 출토된 비석에는 ‘國主’라 하여 국왕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도 나온다. 그러므로 왕의 지방 순례나 불사 참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후 양면에 香徒가 언급되고 그 성원들을 병기하는 점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慶南文化財研究院, 앞의 現場說明會資料, 2004.6.

86) 金昌謙, 앞의 논문, 2005, 104쪽.

87) 박상국, <新羅白紙墨書 華嚴經에 나타난 則天武后字 研究>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 2004, 244~254쪽,

88) 이 비석의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神述’과 ‘天雲大王’의 구절을 들어 축소하여 혜공왕의 재위기간(765~780)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출되어 있다(金昌謙, 앞의 논문, 2005, 127쪽).



〈그림 1〉 泗川新羅古碑의 앞면과 뒷면

(前面)

- 1행 : 香徒上了言大德縣令…
- 2행 : 乃末體貞上村主岐…
- 3행 : □□□□…

(後面)

- 1행 : 一更得乃末香徒□…
- 2행 : 國主天雲大王上大等□…
- 3행 : 神述時州總官蘇干□…

향도는 각자의 신앙에 따른 공동체적 조직으로 타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신앙공동체를 의미하였다. 삼국~통일신라에 걸치는 시기 이들 조직은 미륵신앙이나 미타신앙에 바탕을 두고 조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라 이후 고

려 전기에는 鄕吏層이 이 조직의 운영을 주도하면서 사회적으로 郡縣 내지 地域村 규모의 향촌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활동은 불상·불탑·사원의 조성과 법회 등에 대 규모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sup>89)</sup>

경덕왕대 康州 萬日契는 이러한 향도조직을 시사하는 신행형태로 보여진다.

康州[진주]의 善士 수십 인이 서방정도를 구하려는 뜻으로 고을 경내에 彌陀寺를 세우고, 萬日을 기약하고 契를 만들었다. 이때 아간 貴珍의 집에 郁面이라는 이름의 한 옥면이 있었다. 그는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 서서 염불을 따라 하였다. 주인은 그녀가 직분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미워하여 매양 곡식 두 섬씩을 주며 하루 저녁에 그것을 다 쪼개 하였다. 옥면은 초저녁에 다 쪼개는 절에 가서 염불하기를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앙조직에 기초한 향도나 만일계의 무리들은 후대로 오면서 더욱 발전되어 자발적인 조직으로 운용되었다.<sup>90)</sup> 강주 만일계의 경우는 일종의 결사신앙의 모임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불교 신앙에 기인하였지만 공동으로 미타세계를 희원하는 공동체적 결속을 반영하였다. 이들 조직에는 재지 유력가가 포함되어 있고, 참여층으로는 노비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이들의 신행규약은 명문화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불문율의 공동 규칙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경덕왕대에 활동한 향도조직은 1백 명에서 약 2천 명을 헤아릴 만

89) 채웅석, <여말선초 향촌지배층과 신앙공동체의 활동>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3, 115~116쪽.

90) 金弼東, 《韓國社會組織史研究－契組織의 構造的 特性과 歷史的 變動》, 一潮閣, 1992, 36~70쪽.

큼 일정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왕 7년의 경우, 圓覺寺를 중심으로 發徵 외 승려 31인이 주축이 되어 香徒가 결연되고 있었다. 그들은 彌陀萬日蓮會를 결성하였는데, 한 번 모임에 1천 8백 인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법회가 열리면 죽과 밥은 물론 의복도 시주하였다.<sup>91)</sup>

그리고 왕 8년 8월의 사례는 美黃寺事蹟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일종의 연기설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여기에 보이는 향도의 구성원은 義照·張雲·張善 등의 승려들, 그리고 村主 于甘과 함께 1백여 인으로 구성되고 있다.<sup>92)</sup> 이는 사원의 창건과 같은 큰 불사를 위한 것으로 그 인원들은 단월과 함께 해당 사원의 신도들을 포함하는 인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향도들은 일차적으로 그 목적이 공동의 불교신행을 통한 기원의 추구에 있었겠지만, 그 결속력은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만큼, 해당 사원의 유지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이러한 신행조직과 함께 지방사원의 운영기반으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체적인 경제기반이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토지가

91) <乾鳳寺蓮會碑> 《嶺東地方金石文資料集(1)》 “維時唐肅宗乾元戊子 新羅國固城縣圓覺寺 有發徵大和尚 法諱棟梁 住持山門 誓發弘願 請頭陀貞信良順等三十一人 創設彌陀萬日蓮會 結香徒千八百二十人 千七百人爲粥飯施主 百二十人爲衣服施主 每歲歷諸家 家出米一斗 香油一升 五綜布一端 爲長年供具 至二十九年 …”.

92) <靈巖郡達摩山美黃寺事迹碑銘> 《朝鮮金石總覽(下)》 “有唐開元十三年乙丑 新羅景德王八年八月十二日 忽有一石缸 來泊于山底 獅子浦口 … 義照和尚聞之 與張雲張善二沙彌 暨村主于甘 香徒一百人同行 齋沐虔禱 石船乃至岸 鑄成金人一驅 執轡而立 張以繡帆 就而觀之 其中有金函 具鎖鑰 盛以玉軸 金字華嚴經八十縛 … 又有金環黑石各一枚 香徒等 齋經下岸 方議奉安之地 黑石即拆 而生青黑牯牛一頭 … 初臥之壤 創一蘭若 今通教寺是也 後臥之峽 營一刹 以安聖及神幘顏之曰 美黃”.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토지가 사원의 주요 재원이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였다. 일찍이 문무왕 4년 사원에 재물과 田地를 시납하는 것을 금하는 승이 내려지기도 하였는데,<sup>93)</sup> 이는 그만큼 전지의 시납이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원광이 머물던 嘉西岬寺에는 檀越尼가 田地를 시납하였다.<sup>94)</sup> 효소왕도 1만 頃의 토지를 栢栗寺에 바쳐 적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한 부처의 은덕에 보답하였다.<sup>95)</sup> 이들은 모두 信心이 전제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였다. 경덕왕의 부왕인 聖德王은 眞如院을 개창하고 莊舍를 세워 이를 관리하였다.

오랫동안의 비용으로서 매년 봄과 가을에 가까운 州縣의 倉租 1백 석과 맑은 기름 1석을 공급하는 것을 恒規로 삼았다. 眞如院의 서쪽으로 6천 步를 가면 牟尼帖에 이르고 古伊峴을 넘으면 柴地 15결, 밤나무밭 6결, 坐位 2결이 있는데 莊舍를 설치하였다.<sup>96)</sup>

이로써 진여원에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가까운 고을의 租와 淨油를 거두어 사용하도록 한 規勅[恒規]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절에서 6천 步가량의 거리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목적으로 장사를 설치해 두고 있었다. 동왕 18년 金志誠은 莊田을 희사해 甘山寺를 세우고 미륵상과 아미타상을 조성하였다.

93) 《三國史記》 권6, 文武王 4년 8월.

94) 《三國遺事》 권4, 義解 圓光西學.

95) 《三國遺事》 권3, 塔像 栢栗寺.

96) 《三國遺事》 권3, 塔像 臺山五萬眞身, “始改創眞如院 大王親率百寮到山 營構殿堂 竝塑泥像文殊大聖安于 堂中 以知識靈卞等五員 長轉華嚴經 仍結爲華嚴社 長年供費 每歲春秋 各給近山州縣倉租一百石 淨油一石 以爲恒規 自院西行六千步 至牟尼帖古伊峴外 柴地十五結 栗枝六結 坐位二結 創置莊舍焉”.

國主大王과 이찬 愷元公,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돌아간 아우 小舍 梁誠, 沙門 玄度, 돌아간 처 古路里, 돌아간 누이 古寶里 또 아내 阿好里 등을 위하여 그의 甘山 莊田을 회사해 이 가람을 세웠다. ... 었드려 바라건대 이 작은 인연이 피안에까지 다달아 四生六道의 중생 모두 보리를 증덕하소서.<sup>97)</sup>

통일신라의 莊舍와 莊田은 이 시기 대토지지배의 대표적 형태로, 흔히 말하는 田莊支配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가운데 불교 사원은 그 운영의 주체 가운데 하나였다.<sup>98)</sup> 시기에 있어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원의 전장지배를 보여주는 사례는 이 외에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또 이를 통해 그 지배의 형태와 성격도 짐작할 수 있다. 莊舍를 두고 知莊과 같은 관리인을 파견하는 것은 대표적인 형태였다.

옛날 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世達寺의 莊舍가 溟州 捺李郡에 있었는데, ... 本寺에서 승려 調信을 보내어 知莊으로 삼았다.<sup>99)</sup>

이러한 사원의 전장지배는 경덕왕대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金大城은 興輪寺에 傭田을 시납한 것으로 기록에서 확인된다.<sup>100)</sup> 그리고 경덕왕 자신은 敏藏寺에 받을 시주하였다.<sup>101)</sup> 그 뿐 아니라 왕 18년에는

97)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韓國金石全文(古代)》, 128쪽.

98) 이 시기 寺院의 田莊支配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金潤坤, <羅代之 寺院莊舍> 《考古歷史學志》 7, 1991; 金昌錫, <통일신라기 田莊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5, 1991, 68~72쪽; 金琪燮, <新羅 統一期 田莊의 經營과 農業技術>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13, 1992, 18~19쪽; 李炳熙, <三國 및 統一新羅期 寺院의 田土와 그 經營> 《國史館論叢》 35, 1992; 李仁在, <신라통일기 田莊의 형성과 경영> 《韓國 古代·中世의 支配體制와 農民》, 知識產業社, 1997, 128~140쪽.

99) 《三國遺事》 권3,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昔新羅爲京師時 有世達寺 -今興教寺也- 之莊舍 在溟州捺李郡 ... 本寺 遣僧調信爲知莊”.

100) 《三國遺事》 권5, 孝善 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

寶林寺에 長生標柱를 세워 토지의 관리 지배 경역을 보호해 주기도 하였다.

表德은 불법의 힘으로 政事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로써 乾元 2년 왕은 특별히 교지를 내려 長生標柱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 표주가 오늘 까지 남아있다.<sup>102)</sup>

장생표는 독자적인 지배권역의 표시로 사원의 四方境界에 세워지기도 하였는데, 토지의 지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토지를 경작·관리하는 데는 일부 특수한 직임자가 배정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진평왕이 창건한 東泉寺에는 ‘田民’이 시납되었다고 하고,<sup>103)</sup> 貴珍은 郁面이 출생한 곳에 자신의 집을 회사해 法王寺를 조성하면서 田民을 함께 시납하고 있다.<sup>104)</sup> 이와 같은 전민 시납의 토지는 경작 노동력 또한 함께 시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토지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여러 지역에 걸쳐 분포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田園·田莊의 형태나 莊舍가 딸린 경우의 토지들은 비교적 규모 있는 토지들로 인근의 농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럴 경우 토지를 매개한 사원의 경제기반은 불교신앙과 결부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사원 촌락의 모습을 띠기도 하였다. 그런 사례들은 적지 않게 찾아진다.

불교를 국교화한 법흥왕은 궁중에 있던 친척들을 절에 붙이게 하였다고 한다.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후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101) 《三國遺事》 권3, 塔像 敏藏寺.

102)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韓國金石全文(古代)》, 200쪽, “表德 以法力于有政 是以乾元二年 特教植長生標柱 至今存焉”.

103) 《三國遺事》 권2, 紀異 元聖大王

104) 《三國遺事》 권5, 感通 郁面碑念佛西昇.

살면서 王孫이라 칭하였다 한다. 또 일부 역신들도 대를 이어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sup>105)</sup> 귀천을 불문하고 이 같이 대를 이은 삶이 가능하려면 사원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하였을 것이다. 신라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상징적 인물로 원효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의 출신지도 사원 촌락의 형태를 시사해 준다. 그는 押梁郡 남쪽의 佛地村에서 태어났는데, 13세기 그곳을 답사한 一然是 그것이 촌락의 형태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sup>106)</sup>

그런 의미에서 성덕왕이 고쳐서 다시 세운 眞如院의 장사는 단순히 건물만을 지칭하지는 않을 것이다. 왕이 직접 행차해 그곳에 佛殿을 짓고, 해마다 租와 淨油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恒規를 정하고 설치한 ‘莊舍’는 그것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고 그것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던 만큼, 어떤 형태이건 그 지방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흥 寶林寺의 경우는 아예 長生標柱를 설치하고 지역을 구획해 두기도 하였다. 여기에도 莊舍가 설치되고 知莊을 파견하여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주변은 제각기 뜰[각단]을 이루며 자연촌락들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들 촌락들은 사원과 공존하면서 僧俗이 뒤섞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경덕왕 16년 남사가 창건된 백월산 주변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인 <白月山兩聖成道記>에는 그러한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나이가 모두 스무 살이 되자 마을의 동북쪽 고개 밖 法積房에서 함께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서남쪽의 치산촌 法宗谷 僧道村에 옛 절이 있어 정신을 수련할만하다는 말을 듣고, 같이 가서 大佛

105) 《三國遺事》 권3, 興法 元宗興法 厭羈滅身.

106) 《三國遺事》 권4, 義解 元曉不羈, “佛地村今屬慈仁縣 則乃押梁之所分開也”.

田·小佛田 두 마을에서 각각 살았다. ... 부득은 懷眞庵에서 살았는데, 후 壤寺(지금의 懷眞洞에 옛 절터가 있으니 곧 이것이다)라고도 하였다. 박박은 瑠璃光寺(지금 梨山 위에 절터가 있으니 곧 이것이다)에 살았다. ... 모두 처자를 데리고 와서 살면서 산업을 경영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정신을 수련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sup>107)</sup>

수행공간이자 생활공간이 되었던 이곳에는 많은 사원과 마을이 분포하였다. 서남쪽 雉山村에 있는 法宗谷의 僧道村은 古寺 주변에 형성된 자연촌락이었다. 이에 비해 치산촌은 승도촌을 아우르는 廣域의 촌락이었다. 그런데 北嶺 바깥의 法積房에서 출가한 朴朴師와 夫得師는 이후 古寺의 屬院일 가능성이 높은 회진암과 유리광사에서 수행하였다. 또 그들은 그 가운데 한 구역인 大佛田·小佛田洞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산업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가족과 더불어 생업에 임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 촌락은 그들이 신행의 구심점으로 삼은 사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촌락이었을 것이다.<sup>108)</sup>

## V. 맺음말

이상에서는 신라 경덕왕대를 중심으로 불교 사원과 지방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제 거론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삼고자 한다.

먼저, 경덕왕대 치세와 주요 佛事를 아울러 모두 네 시기로 나누어 전반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왕 7년 이후부터 지방을 중

107) 《三國遺事》 권3, 塔像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108) 배상현, 앞의 논문, 2006, 121~126쪽.

심으로 자율적인 불교 실행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불사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佛國寺가 창건되기 시작하는 왕 10년 이후부터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왕은 부분적으로 지방의 승려와 사원의 창건을 경제적으로 후원하였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 사원의 相補的 관계를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음으로 지방사회와 관련하여 불교사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의 사원들은 그 지역의 토착 신앙을 적극 포용하면서 전 지역에 걸쳐 자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는 금산사와 같이 의상의 화엄종 계열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기 지방사회에서의 불교 사원은 중앙과의 관련성 못지않게 在地的 기반을 바탕으로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眞表의 경우에서 보듯 중심 승려의 활동은 그러한 자율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경향으로는 소속 승려와 지역민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彌陀·彌勒信仰을 중심으로 하면서 觀音信仰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발적 실행조직인 향도의 활동과도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지방의 불교 사원은 그 운영의 주체와 지방사회의 실행조직인 香徒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사원이 보유한 田民과 田莊, 그리고 長生標 등의 존재를 통해 대규모의 토지를 지배하는 경제 주체로도 성장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 사원들이 지방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일부의 경우이지만, 사원과 결합된 촌락의 모습은 그것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하여 봄직하다.

【참고문헌】

- 姜晉哲, 《韓國中世土地所有研究》, 一潮閣, 1989.
- 慶南文化財研究院, <泗川 船津城公園 駐車場敷地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2004.
- 郭丞勳, 《統一新羅時代 政治變動과 佛教》, 國學資料院, 2002.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 2000.
- 金琪燮, <新羅 統一期 田莊의 經營과 農業技術> 《新羅文化祭學術發表 論文集》 13, 1992.
- 金南允, <眞表의 傳記資料의 檢討> 《國史館論叢》 78, 1997.
- 金庠基, <花郎과 彌勒信仰에 대하여>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69.
- 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에 表出된 華嚴世界觀> 《佛教研究》 2, 1986.
-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1996.
- 金潤坤, <羅代의 寺院莊舍> 《考古歷史學志》 7, 1991.
- 金貞淑, <金周元 世系の 成立과 變遷> 《白山學報》 28, 1984.
- 金昌謙, <최근 발견 ‘泗川船津里新羅碑’ 검토>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金昌錫, <통일신라기 田莊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5, 1991.
- 金哲堉,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產業社, 1975.
- 金弼東, 《韓國社會組織史研究－契組織의 構造的 特性과 歷史的 變動》, 一潮閣, 1992.
-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역사비평사, 1991.
- 박광연, <眞表의 占察法會와 密敎 수용> 《韓國思想史學》 26, 2006.
- 박상국, <新羅白紙墨書 華嚴經에 나타난 則天武后字 研究> 《한국불교학 결집대회논문집》, 2004.
- 박해현,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3.
- 배상현, <신라 경덕왕대 지방사회와 白月山 南寺의 창건－『白月山兩聖成

道記」를 중심으로 - > 《白楊人文論集》 11, 2006.

申滢植, 《統一新羅史研究》, 三知院, 1990.

尹京烈, 《慶州南山-겨레의 땅 부처님 땅》, 佛地社, 1993.

尹汝聖, <新羅 眞表의 佛教信仰과 金山寺> 《全北史學》 11·12, 1989.

李根直, <통일신라 奉聖寺와 折怨堂> 《新羅史學報》 7, 2006.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李基白,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李炳熙, <三國 및 統一新羅期 寺院의 田土와 그 經營> 《國史館論叢》 35, 1992.

李仁在, <신라통일기 田莊의 형성과 경영> 《韓國 古代·中世의 支配體制와 農民》, 知識產業社, 1997.

全德在, <新羅 祿邑制의 性格과 그 變動에 관한 研究> 《歷史研究》 1, 1992.

정두희 외,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3.

鄭義道, <新羅天雲大王銘碑 研究> 《한국중세사연구》 20, 2006.

趙二玉, <統一新羅 景德王代 專制王權과 祿邑에 對한 再解釋> 《東洋古典研究》 1, 1993.

진성규·이인철, 《신라의 불교사원》, 백산자료원, 2003.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黃壽永, <新羅景德王代의 白紙墨書 華嚴經> 《歷史學報》 83, 1979.

ABSTRACT

## Buddhist temples and local society in King Gyeongdeok's reign in Silla

Bae, Sang-Hyun

This thesis aims to give a general view of the Buddhist temples and local society in the days of King Gyeongdeok's reign in Silla. First it divides the king's era into our periods and examines their respective tendencies.

Voluntary Buddhist campaigns were encouraged in earnest in the local communities after 7 years' of the king's enthronement, reaching the peak in 3 years when Bulguk Temple was founded. The king also made financial, if partial, contributions to building temples, which suggest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temples.

Local temples embracing aboriginal religions were spread all over the country, some of which excelled Eusang's Hwaeom sect in scale. In these days Geumsan Temple, Hwaeum Temple, Baekwolsannam Temple, Borim Temple, and Dangok Temple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 religious aspects, Amitabha · Maitreya faith embracing Gwaneum ideas was the central trend which met the demand of both its monks and local residents. It is assumed that this tendency had to do with the activities of Hyangdo, a voluntary religious organization.

Buddhist temples during this era became very prosperous, with the subjects of temple management and Hyangdo organically connected. In economic sense, the existence of farmlands (jeonmin, jeonjang, and jangsaengpyo) is the evidence that temples had been growing as a main body of economy which managed massive lands. It also implies that temples and local residents' economic activities in those days were closely interrelated. In some cases, the presence of villages combined with temples is a sure reflection of the tendency.

Key words : King Gyeongdeok, Buddhist temples, local society, Hyangdo, jeonjang

논문 투고일 : 2006. 7. 10

심사 완료일 : 2006. 11. 30